

목포역 신축·대불산단 대교 건설...목포 SOC 확충 '올인'

시, 2028년까지 3층 규모 새 역사 신축...역세권 개발 용역 진행 호남고속철도 2단계 내년 개통·무안 신도시 잇는 트램 구축도 추진

목포시가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될 대규모 사회간접시설(SOC) 확충에 행정력을 올린다고 밝혔다.

목포시는 목포역을 서남권 대표 랜드마크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와 협력 중이다.

1913년 개통해 1978년 지금의 모습을 갖춘 목포역은 하루 평균 7000여명, 주말 평균 1만여명이 이용하지만 건축된지 45년이 지나면서 타역사에 비해 1인당 대합실, 화장실 등의 시설이 협소해 역사 신축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수 차례 국회를 비롯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 노후역사 개량을 지속 건의했고 지난해 12월 한국철도공사의 호남선 목포역 시설 개선 사업에 최종 반영됐다.

새롭게 단장되는 목포역은 기존 지상 역사를 철거하고 선로 위에 지상 3층 규모로 건축되는데, 쾌적한 역사 환경과 고객 안전 확보,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고객 이동 동선을 최적화한 신상 역사가 될 전망이다.

현재 한국철도공사는 목포역 설계공모 당선작을 결정하고, 당선업체와 실시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으며, 15개월간 실시설계를 거쳐 2026년부터 2028년까지 공사에 들어간다.

또 2025년에는 광주 송정에서 무안공항 목포를 잇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과 남해안 철도망이 개통될 예정이다. 무안국제공항 이용객과 영호남 반나절 생활권이 가능해져 목포를 찾는 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목포역 일대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개발방안을 마련하고자 '목포역세권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다. 또한 유달산 내 '체류형 관광속박시설' 조성을 위해 유달산 서면(북향) 유원지 조성을 추진 중으로 2025년부터 토지 보상 등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목포시는 전남도의 '서남권 SOC 신프젝트'의 핵심사업인 광주에서 영암간 초고속도로(아우토반) 건설의 효과를 서남권 경제·관광 활성화와 대중물류 활용하기 위한 대불산단 대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대불산단 대교는 목포 남향과 영암 대불국가산단을 잇는 3.3km의 교량으로 목포 시내 관동도로와 영암군 산업단지 간의 최단거리 교류가 가능해진다. 이에 시는 2035년 완공 목표인 대불산단대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목포 구도심과 무안 신도시를 잇는 22.2km의 '전남형 트램' 구축에도 목포시가 힘쓰고 있다. 전남형 트램은 전남도가 지난해 5월 목포시·영암군·무안군과 함께 발표한 '전남 서남권 SOC 신프젝트'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목포의 미래발전에 꼭 필요한 대규모 사회간접시설이 적기에 구축되어 목포가 서남권의 랜드마크이자 동북아 해양시대 글로벌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전남도와 함께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 서부취재본부장 moon@



지난 2일 신안 영산도에서 국립공원공단 관계자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영산도 밤바다 환경영화제'가 열렸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제공>

명품마을 영산도서 밤바다 환경영화제

다도해국립공원서부사무소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소장 이진웅)는 국립공원공단 영산도명품마을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일 '제2회 영산도 밤바다 환경영화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영산도명품마을은 주민 스스로 국립공원을 보호·보전해 탐방객에게 휴식과 여가를 제공하고,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2년에 3번째 국립공원 명품마을로 지정됐다.

이번 영화제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와 영산도명품마을 운영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해 영산도 내 야외무대에서 임형묵 감독의 물고기에 대한 선입견을 깰 수 있는 흥미

로운 이야기를 담은 영화 '아이 엠 피쉬'를 상영했다. 이후 주민과 탐방객 대상 바다의 생물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환경 토크쇼를 진행해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특별한 밤이 됐다.

또 거북손, 흉합 등 영산도에서 수확한 식재료를 활용한 섬마을 향토음식 만들기 체험과 국립공원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해 영산도를 방문한 탐방객들에게 마을의 다양한 맛과 볼거리를 제공했다.

김광권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영산도명품마을의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공민마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해남군, 하계 스포츠마케팅 활기...전지훈련·전국대회 잇단 유치

여름 전훈 19개팀 362명 찾아 배구·골프·축구 대회 잇따라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해남에서 '제3회 땅끝해남기 전국 초등학교 배구대회'가 열렸다. 경기 모습.

해남군이 올림픽 열기를 뛰어넘는 스포츠 향연으로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다.

해남군은 사계절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하계전지훈련과 전국단위 스포츠대회를 유치해 스포츠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여름철 전지훈련은 완주군청 근대5종팀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9개팀 362명이 해남을 찾았다. 특히 지난 1일부터 13일까지 근대5종 국가대표 꿈나무 선수단 28명이 해남을 방문해 차기 올림픽 출전 등 국가대표의 꿈을 키우며 연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해남군은 하계기간 전지훈련과 스포츠 대회를 통해 연인원 2만여 명의 선수단을 유치할 계획으로 연인원 3만여 명이 다녀간 2023·2024 동계전지훈련에 못지 않은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하계기간 전국단위 스포츠 대회도 다수 열린다.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제3회 땅끝해남기 전국 초등학교 배구대회가 열렸다.

이어 9일부터 11일까지 땅끝해남배 전국 유소년 농구대회,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대학 골프 5차대회, 15일부터 19일까지는 땅끝해남배 전국 유소년 클럽 축구대회까지 5개 전국단위 대회가 잇따라 개최된다.

이번 대회들은 방학기간을 이용한 유소년 대회

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어 전국대회를 통한 기량 점검과 함께 선수 개인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다.

해남군도 선수를 뿐만 아니라 가족단위 방문객들이 함께할 수 있는 각종 이벤트와 관광, 체험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초등배구대회에는 '이기면 좋고 저도 괜찮아'라는 주제로 가족과 선수들이 함께하는 레크레이션 및 댄스파티를 기획했고 대학골프 선수들을 대상으로 해남 관광 SNS 콘테스트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해남군을 찾는 스포츠인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특히 11일까지 해남군민광장에서 열리는 제1회 해남땅끝배 전국 태권도 시범 페스티벌을 통해 스포츠인들은 물론 군민과 관광객들이 함께할 수 있는 색다른 스포츠 무대를 선사한다. 시범 페스티벌은 전국 최초로 개최하는 태권도 시범공연 경연대회로 10일 저녁 7시에는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국가대표 시범단의 축하 무대도 펼쳐진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해남군은 굴뚝없는 청정산업인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특화된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번 여름 해남에서 열리는 다양한 스포츠대회를 통해 사계절 스포츠마케팅의 진수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진도군, 수산단체연합회와 정책 간담회

해양수산사업 추진방향·태풍 재해 대비 등 현안과제 논의



진도군이 진도군수산단체연합회와 정책 간담회를 갖고 현안과제를 논의했다. <사진>

이번 간담회에 김희수 진도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들과 수산단체연합회원, 12개 직능별 단체회장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당면 현안과 주요 협조사항과 홍보사항, 질의·응답, 건의사항 청취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수산지원과 업무 추진전략 ▲해양수산사업 지원과 추진방향 ▲태풍 등 수산재해 대비 ▲해양환경 보호활동 강화 등 수산업계가 직면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수산단체연합회는 전복산업 침체, 인건비·경영비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에 대해 군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수산인들이 겪고 있는 힘든 상황과 우려에 깊이 공감한다"며 "앞으로 수산인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수산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

무안사랑상품권, 울들어 270억 어치 발행

월별 7% 할인을 적용

무안군이 발행하고 있는 무안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다.

무안군은 올해 8월 기준 무안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270억원이며 월 구매한도는 50만원으로 월별 7%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군은 명절 이전 달과 명절이 속한 달인 1·2

8·9월에는 10% 할인율을 지원한다. 지역민의 생활 안정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고 있다.

무안사랑상품권은 지난 2019년 도입 이후 가맹점이 4268개소(정책 86개소 포함)에 달해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군은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고흥사랑 기부자, 전입 환영 지원금, 초·중·고생 입학축하금, 대학교 진학축하금과 밀리터리테마파크, 전통생활문화테

마파크 등 관광지 입장료 일부 환급도 무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 무안 대표 축제인 황토갯벌축제와 연꽃축제 기간 지역 농특산물 구매자와 행사 체험자에게 무안사랑상품권 환급 이벤트를 진행해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있다.

이해향 무안군 지역경제과장은 "소비위축,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위기 속에서 소상공인과 지역민이 상생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무안사랑상품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영암 고향사랑기금으로 소아청소년과 진료 개시

영암군이 전국 최초로 고향사랑기금으로 소아청소년과를 신설하고 오는 19일부터 진료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영암군의 0~18세 소아청소년은 6023명(7월 현재)이지만, 지금까지 소아청소년 전문의와 병원이 없었다. 소아청소년이 전문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목포나 광주로 나가야 해서 그간 불편과 불만을 제기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았다.

영암군은 소아청소년과 신설을 위해서 고향사랑기금사업으로 임상경험이 풍부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명과 간호사 1명을 채용했다. 이들은 영암군보건소와 삼호보건소에서 소아청소년 미을 주치의 역할을 담당하고 영·유아 건강검진도 진행한다.

영암군보건소는 관련 진료시설·장비를 고향사랑기금에서 새로 구입해 자질없는 소아청소년과 운영을 위한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소아청소년과는 화·목요일 영암군보건소, 월·수



소아청소년과 진료에 나설 영암군 보건소.

·금요일 삼호보건지소에서 오전9~오후5시까지 운영된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소아청소년과 신설로 부모와 아이가 안심할 수 있는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등 다양한 보건정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



해남군 현산면 구시터널.

겨울철 잦은 사고 해남 구시터널 개선공사

겨울철 잦은 사고가 발생하는 해남군 현산면 구시터널 개선공사가 시작된다.

해남군에 따르면 겨울철 구시터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올초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연을 받아 도로관리청인 광주국도관리사무소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개선사업을 끌어냈다.

국도 13호선에 위치한 구시터널은 광주국도관리사무소 해남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개선사업도 해남출장소에서 시행한다.

노면의 경사도를 바로잡아 배수 및 미끄럼 저항

을 높이고 가드레일 등 안전 시설물을 보강할 계획이다.

겨울철 이전인 9월 말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해남군은 터널 입구 서행 유도를 위해 과속단속 카메라 위치도 터널 입구로 변경한다.

해남군 관계자는 "구시터널 안전 통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형상 겨울철 눈이 잘 녹지 않으므로 무엇보다도 운전자의 서행 등 안전운전만이 겨울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